

2023년 12월 6일

반도체 / 전기전자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g.com
연구원 유우형
02-6114-2940 Woohyung.yoo@kbfg.com
연구원 이경아
02-6114-2111 kyunga.lee@kbfg.com

SK하이닉스 (000660)

성장판 열리는 시기



더 많은 리포트 보기

3분기 D램 점유율 34.3% 역대 최대, 서버 D램 점유율 49.6% 1위

— 올해 3분기 전 세계 D램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34.3%)를 달성하며 2위를 기록했다 (12/5, 트렌드포스). 또한 3분기 글로벌 서버 D램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49.6%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3분기 서버 D램 점유율은 HBM이 반영되지 않아 HBM을 포함한다면 2위와의 격차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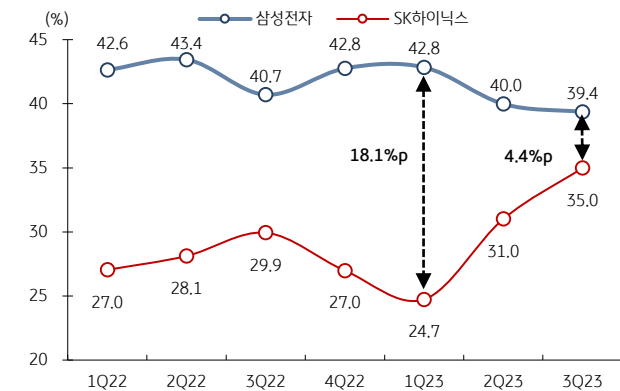
엔비디아 HBM3E 공급 계약 체결, 25년 공급 HBM4 개발 이미 진행

—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내년 2분기 양산 예정인 HBM3E 공급 계약을 경쟁사보다 앞서 가장 먼저 체결했고, 2025년 공급 목표로 6세대 신제품인 HBM4 개발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향후 HBM 시장에서 경쟁우위로 주도권 확보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적과 주가 레벨업 구간 진입, 열리는 미래 성장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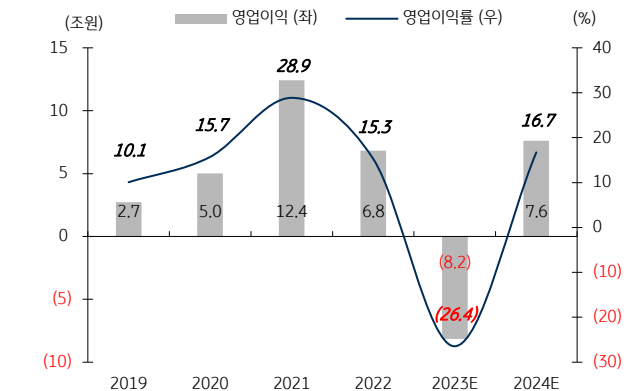
— 현 시점은 HBM과 DDR5 부문에서 선두 업체로서의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SK하이닉스의 D램 미래 성장판이 열리는 시기로 판단된다. 2024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7.6조원으로 추정되어 2021년 (12.4조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우 상향의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위와 D램 점유율 격차 축소 (1분기 18.1%p → 3분기 4.4%p) 및 업계 최고 수익성 시현 (4분기 추정 D램 영업이익률: SK하이닉스 27.2% vs. 경쟁사 10.8%) 등이 예상되어 향후 실적과 주가의 레벨업 구간 진입이 예상된다 <그림 1, 2>.

그림 1. SK하이닉스 vs. 삼성 D램 점유율 격차, 이례적 축소



자료: Omdia, KB증권 추정

그림 2. 2024년 추정 영업이익 7.6조원, 3년 만에 최대



자료: SK하이닉스, KB증권 추정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SK하이닉스]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